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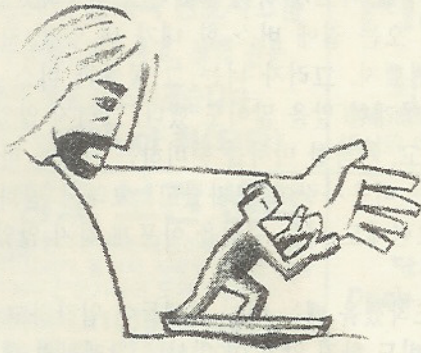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3주일

제27권 21호 (다해) 2007.4.22

[묵상]



이쪽이다

핏빛으로 물든 저녁을 지나 적막한 아침

이쪽이다.

반짝이며 깨어나는 연둣빛 옆으로

눈멀고 빈손인 나를 손짓하여 부르시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명회 (장례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 5월1일 제4단계 개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생)민영준 마르코, 이진향 아네스, 이기보 안드레아 이엘리사, 이미카엘, 아아네스, 아안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주 일 학생미사	(생)장준서 유스티노
주 일 낮 미사	(현)한삼만 요셉, 김두철 아브라함, 김창배 파스칼, 김형진 양갑순 마리아, 정윤 요셉, 김인영 베드로, 이현호 요한 데니스웨버, 이영자 마리아 (생)이상현 베드로, 엄세중 그레고리, 김준호 프란치스코 김성종 토마스, 김형미 테레사, 김중돈 스테파노 문재원 아가다, 이종민 요셉, 이우진 대견안드레아 김셋별 요셉파나 & 한기선 요셉, 이경남 & 이선표 가정 이석제 베드로 가정, 김경덕 요셉, 마리아&루가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5,27ㄴ-32,40ㄴ-41

화답송 ㉠야훼님 나를 구하셨으니
내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이다.
<전례성가 71 부활 제3주일>
㉠야훼님 나를 구하셨으니 원수들이 나를 웃지
못하게 하셨으니 내 당신을 높이 기리려 하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명부에서 건져주시고
구령으로 들지 않게 되살려 주셨나이다.㉠
㉠야훼님 찬양하라 너희 성도들아 거룩하신
그 이름에 감사드려라. 그 노여움은 잠시
뿐이나 그 어지심은 한평생 가나니
울음이 저녁에 깃들어도
새벽이면 즐거움이 있도다.㉠
㉠주여 들자오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몸을 돕는 분이 주여 되시옵소서. 이내 슬픈
울음을 춤으로 바꾸시니 야훼 내 하느님이여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오리이다.㉠

제 2독서 묵시록 5,11-14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인류를 어여뵈 보셨도다.㉠

복 음 요한 21,1-19

영성체송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도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6	162
봉헌	269	163, 268
성체	363	289, 287
파견	170	119

✠ 거룩한 미사에 대한 카탈리나의 증언(2) ✠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너는 정말로
지난밤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믿느냐? 너에게 몇 가지 일을 기억나게 하겠다. 오늘 여기
오려고 집에서 나올 때, 너의 집 하녀가 무엇을 좀 부탁하러
고 네게 다가왔다. 그러나 너는 시간이 늦어서 서두르고 있었
다. 마음이 조급했던 너는 그녀에게 불친절하게 답했다. 그것
은 그리스도적 이웃 사랑에 반하는 잘못이었다. 자. 아직도
내가 하느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겠느냐?”

“이곳에 오는 길에 버스 한 대가 네 앞을 지나갔다. 거의
너를 칠 뻔했지. 그러자 너는 그 불쌍한 버스 기사에게, 네
이웃에게 무례한 말을 많이도 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성당에
늦지도 않고, 거룩한 미사를 준비하는 기도를 바칠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이웃사랑이 모자랐고, 그래서 평화와 인내심을
잃었다. 그런데도 너는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겠
느냐?”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제들이 입장하고 있었다. 너는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이 미사에 참례하려 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성모님, 더 이상 말씀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제 행동의 그 모든 잘못을 기억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과 후회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왜 너희는 미사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오느냐? 너희는
그보다 먼저 성전에 들어와, 기도를 바치고 성령을 보내주시
기를 주님께 청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화
와 화해의 성령을 보내시어 너희에게 이 세상의 영, 매일의
걱정, 개인의 문제, 산만함을 몰아내신다. 그러면 너희는 성체
성사의 지극히 거룩한 순간을 올바르게 합당하게 거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미사가 이미 시작한 다음에야
도착해서 미사가 마치 평범한 일인 양, 영적인 준비도 없이
미사에 참례한다. 왜 그러느냐? 미사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내시는, 가장 위대한 은총의 순간을 함께 하는 기적 중의
가장 큰 기적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소중히 할 줄 모른
다.”

이제 충분했다. 나는 너무나 잘못했다고 느꼈다. 잘못이
너무나 많아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야만 했다. 오늘 잘못된
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수없이 많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처럼 사제의 강론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성전에 들어갔던 일,
수없이 많이, 성전에서 미사에 참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던 일, 또 내 영혼이
완전히 죄 중에 있었음에도 감히 거룩한 미사에 참례했던
수없이 많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해야 했다.

그날은 교회 전례상 대축일이어서 대영광송을 불러야 했다.
사랑하올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여라. 성삼의 피조물인 너 자신을 온전히 깨달아라.”

◆카탈리나 리바스 / 다음 주에 계속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사도들은 요즈음 얼마간 마치고 태풍을 겪은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허탈해집니다. 3년을 따라다니던 스승,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던, 아니 바로 하느님이시라던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것 같더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은 예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상한 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분께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을 떠나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스승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얼마간 무료하게 지내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요한 21,3) 여럿이 줄줄 따라잡니다.

루카 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3년 전 어느 밤에도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힘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지나가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 하셨고, 그 때 무지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그분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5,10) 하셨고, 그 때부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옛날에 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손에 잡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요한 21,3) 하니 3년 세월은 도루묵이 될 판입니다.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려던 베드로는 그 옛날과 똑같은 경험을 다시 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어떤 분이 또 나타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하셨고 과연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부활하신 스승이 오신 것입니다. 가긴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스승께서는 베드로의 삶을 당신께로 되돌리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21,15)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21,15)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21,15)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치다꺼리를 하던 이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성당에 가서 말씀도 듣고 성찬에도 참석합니다. 그리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나는 사업을 하러 가네, 나는 운동하러 가네, 나는 공부하러 가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의 몇 시간 정도로 다 된 듯합니다. 하지만 미사(Missa)란 말은 파견이란 뜻이 있다죠? 돌아가긴 어딜 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돌보는 과제를 주어 파견하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은총을 청하기만 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은총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받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항상 주님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 백남용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우경석 요한	최영신 프란치스코	오세원 아타나시오
제2독서자	민솔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칼슨 2, 4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호미 엘리사벳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김정은 세실리아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 남 1,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 지난 주간 합계: 3,875단 ☞ 총 합계: 117,459단



✽ 박상대 마르코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4월25일)을 축하합니다. ✽
● 축하식 : 오늘 주일 낮미사

- ◆ 4월 사목 상임위원회
 - 오늘 주일 오후1시, 강당
- ◆ 제10회 김수환추기경배 (가톨릭 방송사 기금모금) 골프대회
 - 4월24일(화), 오후 12시30분, Oak Quarry Golf Club
 - 연락: 최기남 야고보 569-3940
- ◆ 전례부 부활 파티 및 평가회
 - 4월29일(주일), 오후5시, 강당
 - 해설자, 독서자, 전례봉사자, 복사단, 청년회 전례봉사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 4월29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자격: 7학년 이상 모든 학생 ● 참가비 : \$1
 - 신청마감: 3월18일(주일)
- ◆ 본당 울프레아 모임
 - 4월29일(주일), 오후 1시, 유아실 (점심제공 합니다.)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D.) 참가자/부모 모임
 - 4월29일(주일), 오후12시, Room 3
 - 참가비 잔액 납부 마감: 4월29일(주일)

✽ 성모의 밤 : 5월5일(토) 오후 8시

- 각 단체 및 개인 꽃 봉헌과 초 봉헌 있습니다.
- 문의: 수녀님
- 이날 토요일 특전미사는 오후 7시에 있습니다.

- ◆ 요셉 안나회 부활맞이 온천 관광
 - 4월30일(월), 오전 8시 성당출발
 - Elsinore 온천장
 - 회비: 회원 \$15, 비회원 \$25
 - 문의: 회장 이영희 카타리나 (310)944-2737
- ◆ 제58차 M.E. 첫주말: 5월4일(금)~6일(주일)
 - 참가부부 : 성낙호 요셉 & 은혜 실비아
이석호 라파엘 & 종미 카타리나
이경천 & 김기숙 엘리사벳
 - 첫 주말을 참가하시는 세 부부들을 위하여 M.E 가족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 ◆ 주일학교 견진반 '홀리스분들께 사랑의 샌드위치 나누기'
 - 샌드위치 만들기: 5월5일(토), 오후 2시 강당
 - 샌드위치 분배: 5월6일(주일) 9시30분미사후 Down town
 - 주관: 주일학교 견진반/대건회
 - 사랑의 샌드위치 만들기에 많은 신자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4월22일: 신부님 영명축일 전신자 국밥 나누기
성모회, 소공동체 에서 봉사합니다.
 - 4월29일: 토렌스 동 1반 (카레 \$3)

✽ 환영합니다. ✽

- 김영미 파센시아 & 이중호 (토렌스 남 2반)
자녀: 이영곤 & 진옥
- 박태준 요셉 & 김소령 막달레나 (토렌스 동 4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태홍	고천용	권태만	김상근	김정현	성전헌금	강태홍	고천용	권태만	김상근	김정현	김준호
	김준호	김철웅	류인섭	문충한	민봉식	민상기		김철웅	문충한	민봉식	민상기	박순자	박정희
	박순자	박정희	박진수	박현주	배기엽	성낙호		박현주	배기엽	성낙호	신경훈	오기석	오수인
	송재훈	신경훈	양은순	오기석	오수인	오태환		오태환	우영희	유경자	유영균	육근주	육재민
	우영희	유경자	유영균	육근주	육재민	윤석구		윤영훈	이경용	이상규	이용식	이일길	이종한
	윤영훈	이경용	이상규	이용식	이종한	임종택		임종택	조영희	최진수	현석주	홍주희	
	조소영	조영희	최진수	현석주	홍주희								
합계 : \$4,620							합계 : \$3,520						
부활초: 최미에 카타리나, 성지가지 봉헌: 익명													
제대 꽃봉헌: 김진희 골롬바 감사합니다.													
미사헌금	\$2,968	사순예금 합계			\$8,221.16 as of 4/15/07		감사헌금	지경수					

◆ 제9회 연중 Catholic Lobby Day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위해 일하십시오.” - 교황 바오로 6세
 “정의를 원한다면, 생명을 옹호하십시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주 주교회의에서는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와 농부와 이민자들의 가족 생계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의사 자살 방지 법안(AB374), CA Dream Act(SB160) 법안 등에 대해 주의회에 가톨릭 신자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마련하고 많은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호소합니다.

- 4월24일(화) 오전9시~오후4시
- Blessed Sacrament 주교좌 성당, Sacramento
- 주관: 가주 주교회의 California Catholic Conference
- 참석자들을 위한 Bus제공 (213)637-7550

◆ The Rosary Bowl

A World at Prayer is a World at peace:
 A Rosary Celebration
 기도가 있는곳에 평화가: 묵주기도 축제

- 5월19일(토) 오후6시~9시
- Rose Bowl, Pasadena
 7201 Sundet Blvd., Hollywood, CA 90046
 Web: www.rosarybowl.org
 (800)874-0999, (323)874-6633
- 세상의 평화와 모든 가정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Rose Bowl 가득히 채워서 영원한 기도인 묵주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 L.A. 대교구 모든 신자들이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순간에 많은 신자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여 일치와 평화의 체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 Torrance 보바로카 ◆

- Part Time 일하실 분, 원하는 시간에 일 하실 수 있음
- 연락처: (310)817-1592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강당

다음 주 단체 모임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정정숙 레아		
	4	권본경 율리아	형제반 1째 수 자매반 3째 수	오후7시, 성당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2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장주란 파리아 486-1982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Club.cyworld.com/103	908-882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차장) 938-3255	권병연 리디아	938-3255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 차장)	1	최경애 프란체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최진수 예우세비오 5/11(금) 오후7시30분	377-6328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3	전애경 율리아나 541-5370		
	4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 희생자 유족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입니다.”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제위 신부님들께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하셨을 것입니다만, 지난 4월 16일 오전 중에 발생한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33명의 무고한 학생들이 사망하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진 학생(조승희, 23세)이 한국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은 참으로 우리 모두를 경악과 충격에 빠뜨립니다.

미국의 대부분 언론과 대학당국, 그리고 유가족들은 이번 비극의 원인이 특정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므로 인종이니 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며, 사건의 본질은 총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미국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의 책임도 크다는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 전문에서 “희생자와 부상자, 그 가족, 그리고 미국 국민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사건이 조속히 수습돼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남가주 한인 천주교회는 (당장 회의를 소집할 수 없기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실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1. 오늘부터 희생자를 위한 연미사 33대, 유족들을 위한 생미사 33대를 봉헌합니다.
2. 미사가 끝나는 날까지 본당 별로 추모기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18일 *Oran Park*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회장

박상대 마르코 신부 드림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희생자들을 하느님 자비에 맡겨드립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으로 33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많은 부상자가 생긴 데 대하여 한국 천주교회는 경악과 깊은 슬픔을 감출 길 없습니다. 젊음의 꿈을 꽃피우지 못한 채 스러진 희생자들을 하느님 자비의 품에 맡기면서 희생자와 부상자의 가족은 물론 미국에 사는 모든 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참사를 일으킨 젊은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저희 주교들은 더욱 큰 충격과 아픔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의 존엄성을 모두가 깊이 깨닫고 이를 지키도록 도울 직무를 다하지 못한 저희 주교들은 그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또 다른 폭력이나 보복으로 무고한 희생이 되풀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이 어떠한 편견이나 민족 간의 또 다른 갈등으로 증폭되는 불행을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비극을 계기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돌아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이웃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최근 <생명의 문화를 향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근본적 가치인 생명과 가정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사회는 결코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논리에 집착하여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전 세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하며,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을 주님 자비의 손길에 맡겨 드리고 이 일로 슬픔에 빠져 있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2007년 4월 18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